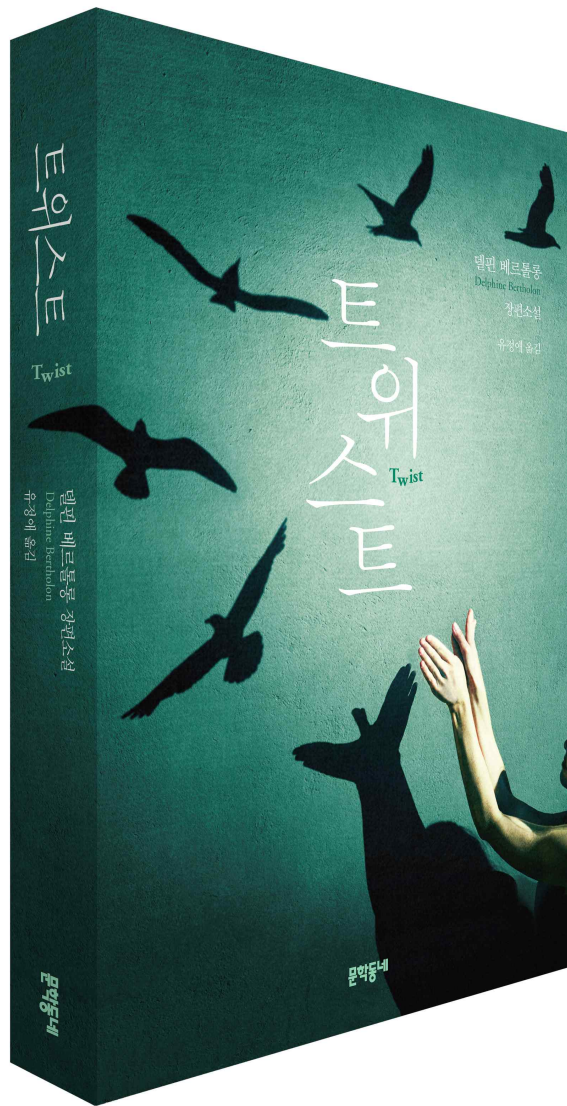


문학동네 신간안내

트위스트

Twist



델핀 베르톨롱 장편소설 | 유정애 옮김

납치되어 오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소녀
다시 '산 자들의 세상'으로 돌아오다!

프랑스 문단의 새로운 재능 델핀 베르톨롱
피해자의 관점으로 다시 쓴 범죄의 기록

#델핀베르톨롱 #트위스트 #소설 #프랑스소설 #납치 #감금 #탈출 #희망 #성장 #성장소설

프랑스 문단의 새로운 재능 델핀 베르톨롱 피해자의 관점으로 다시 쓴 범죄의 기록

『트위스트』는 1998년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타샤 캠푸슈의 실종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소설로, 열한 살에 납치된 마디슨이 오 년 후 극적으로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며, 감금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숙해지는 아이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가해자의 시선을 따라 포르노그래피처럼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는 일부 납치 서사와 달리, 『트위스트』는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납치범에게 굴하지 않고 그에 맞서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 애쓰는 영리하고 매력적인 주인공 마디슨의 일기, 마디슨의 어머니가 사라진 딸을 그리워하며 쓰는 편지, 마디슨이 짝사랑하는 테니스 선생님 스타니슬라스의 자기고백적 에세이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면서 맞물리는 흥미로운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국내 처음 소개되는 델핀 베르톨롱은 여섯 살 때부터 시와 소설을 쓰며 글쓰기에 재능을 드러내다 이른 나이에 데뷔한 프랑스 문단의 신예다. 스무 살에 집필한 『망가진 레이스』로 빌뇌르반 소설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2012년 올리비에 아부 감독의 영화 <에스 위 캔>의 시나리오를 맡아 극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파리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내 이름은 마디슨 에샤르. 이건 SOS야!”

소설의 중심축은 마디슨이 지하창고에서 썬내려가는 일기다. 우리 속 짐승처럼 윤패된 마디슨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글쓰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일어난 일을 종이 위에 펼쳐놓으면 고약한 햄스터처럼 마음을 갇아먹는 불안이, 손으로 잡아 찢어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변하는 듯” 느껴졌다고 마디슨은 말한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주먹을 물어뜯고 싶어지는 까만 볼보의 날’ 있었던 일을 들려준다.

그날은 마디슨의 중학교 입학일이었다. 하룻길에 비가 세차게 내렸다. 새끼 고양이 래리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마디슨 옆에 까만 볼보가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한 남자가 동물병원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의 고양이가 아프다는 말에 마디슨은 병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그 차에 훌쩍 올라탔다. 길을 가던 중 남자가 갑자기 약품을 적신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마디슨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후 마디슨은 열한 살부터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오 년이나 되는 세월을 그 남자의 집 지하창고, 3평이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게 된다.

“때때로 이 끔찍한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져.”

납치범은 오랫동안 마디슨을 스토킹하면서 납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왔다. 그의 소원은 황당하게도 마디슨의 사랑을 얻는 것으로, 마디슨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마디슨은 그의 뜻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탈출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 가족마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남자의 가스라이팅을 피하는 마디슨의 전략은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자는 이름이 라파엘이라고 했다. 그러나 마디슨은 믿지 않는다. 그의 끊임없는 거짓말이 지긋지긋해 진데다, 그와 마디슨의 아빠의 이름과 같다는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았던 것이다. 마디슨은 일기

장에서 그를 R라고 지칭하며, 현실에서도 ‘라파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름과 관련된 마디손의 또다른 전략은 마음속에서 자신을 ‘트위스트’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트위스트’라는 별명은 일종의 말장난으로, ‘마디손’이 1960년대 미국에서 트위스트와 함께 유행한 춤인 ‘매디슨’의 프랑스식 발음인 데서 연유한다. 사진작가인 마디손의 할아버지 카프드비엘이 마디손을 자주 ‘트위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렀으며, 마디손을 모델로 한 같은 제목의 사진집을 출간한 적도 있다. 마디손은 R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랑하는 가족이 지어준 이름이 아빠인 척 흉내내는 자에게 침범당하는 것으로 느꼈을 터이다. 그래서 마디손은 혼자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말을 걸 때 ‘트위스트’라는 별명을 쓴다. 자신을 ‘트위스트’로 명명하는 것은 R가 멋대로 상상하고 규정하는 ‘어린이 마디손’이 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디손은 R의 의도대로 길들여지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나가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진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R가 나를 모른다는 거야. 그는 트위스트라는 내 이름을 알지 못해. 그래, 트위스트는 방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시 산 자들 가운데로 올라왔어.

내 말 잘 들어.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언제, 어떻게 나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당장 너에게 맹세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407쪽)

작은 영웅, 마디손

좁은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디손은 심신의 단련을 멈추지 않는다.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안무를 짜 ‘눈꽃 속의 춤’이라고 이름 붙인 춤을 추며 운동을 하고, R를 졸라 열두 살 생일 선물로 백과사전을 받아내서 항목을 하나하나 공부해간다. 무엇보다,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영리하고 용감한 마디손이 이뤄내는 성취는, 절대로 잃지 않는 희망과 유머감각은, 그녀를 작은 영웅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대단하다. 마디손의 또다른 놀라운 점은 어린 나이에도 R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이다. R의 ‘폭 익은 수박’ 같은 머리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백과사전을 독파하며 나날이 풍부해지는 어휘력으로 설명해나간다.

나아가 마디손은 아이를 강제로 붙잡아둔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일침을 놓는다. 지하창고에 여자애를 가둬둔다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도.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불꽃처럼 강한 마음의 힘으로 ‘산 자들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마디손의 여정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언론평

베르톨롱은 서스펜스가 작동하는 원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 _르 피가로

등장인물들의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작용을 훌륭하게 포착해낸다. _틴타 알 솔

초반부터 서사를 관통하는 긴장감과 대조적으로 곳곳에 포진한 유머가 매력적인 소설. _트리뷴 드 주네브

◆ 책 속에서

내 안에서 네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껴, 마디.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하는 딸아, 네가 죽었다면 내가 알겠지. 내 심장이 멈춰도 네 심장이 마치 북처럼 내 안에 강하게 울리니까. 너는 세상 어딘가에 있어.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살아 있어. 두 발을 땅에 딛고 온전히, 무사하게 살아 있어.

마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아는 거야. (44~45쪽)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면 남의 집 테라스가 완전히 망가지도록 창밖으로 뛰어내릴까? 그런데 난 이제 겨우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어. 모르는 게 정말 너무 많아. (76쪽)

사랑과 증오는 혼동하기 쉬운 감정이다. 어느 감정도 동정심이 없으니까. (172쪽)

“하지만 내 생각에 우리 여성들은 이제 단지 그렇게만 존재하고 싶어하지 않아…… 내 말은, 어머니로만 존재하는 거 말이야.” (202쪽)

이제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우울한 때에도 억지로라도 먹어. 아프고 싶지 않거든. 내가 아파도, 그가 나를 의사에게 데려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데려가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리면 안 돼.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아주 조심해야 해. (259쪽)

그가 “마디손! 마디손!” 하고 부르며 내 어깨를 흔들었어.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신경질이 났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욕처럼 들렸어. 내 머릿속에서 내 이름은 ‘트위스트’야. 그가 알지 못할 내 이름이니까. 그는 트위스트라는 이름은 결코 알지 못할 거야! (263쪽)

수십억의 아이들. 지구에는 아이들이 수십억인데, 하필이면 너여야만 했다니! 왜 너여야 했던 걸까?! (369쪽)

너는 나를 몰라.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 스타니스라스, 너는 날 만들어냈어. 그런데 만들어낸 것은 사라져 버려.

숨이 막혔어. 파리가 날 숨막히게 했고, 네 사랑이 숨막혔어.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377쪽)

그녀는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흉내를 내지 않았고, 그녀는 내가 다른 누군가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내 말에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나 역시 귀기울여보면 그녀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나는 그녀의 대답에 들어 있지 않은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말하기 전에 미리 계산하지 않았다. (422~423쪽)

마디는 그 남자한테 인생에서 오 년의 시간을 빼앗겼고,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 년 동안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아이는 강제로 감금되었다. 완전히 갇혀서 유펜 생활을 했다. 그런데 난? 나는 그동안 무얼 했던가? 나는 내 안에 갇혀 있었다. 감옥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약함 때문에, 그리고 거짓 때문에. 슬픔은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은 쉽다. 불행한 채로 있는 것보다 더 비겁한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429쪽)

잠시 다시 펜을 잡았어. ‘남성적’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읽었거든. ‘남성적’은 ‘남성의 특성’을 의미해. 할아버지 말씀처럼 ‘강하다’는 의미지. 그 말은 결국 모든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전혀 강하지 않음을 뜻해. 왜냐하면 여자는 ‘남성적’일 수 없잖아.

그리고 보면 할아버지도 뺑을 친 거네.

뺑은 남성적인 게 틀림없어. (437쪽)

◆ 차례

1부 _9
2부 _215
3부 _399

지은이 **델핀 베르톨롱 Delphine Bertholon**

1976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 때부터 시와 소설을 쓰며 글쓰기에 재능을 드러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잠시 교직에 뜻을 두었으나 곧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스무 살에 집필한 『망가진 레이스』로 빌뇌르반 소설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2012년 올리비에 아부 감독의 영화 <예스 위 캔>의 시나리오를 맡아 극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 밖의 작품으로 『공유 공간』 『하울링』 『흑백의 내 인생』 『용서』 『내 발에 놓인 태양』 『불필요한 몸』 『밤에 걷는 사람』 등이 있다. 현재 파리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옮긴이 **유정애**

덕성여대 불어불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8대학 여성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페르디낭 할아버지 너무나 귀아니예요』 『더 라이언』 『헬』 『제3의 여성』 『개미: 말의 가치를 일깨우는 철학동화』 『소년들』 등이 있다.

- ★ 발행일 : 2020년 6월 30일
- ★ 쪽수 : 460쪽
- ★ 판형 : 140×210 (무선)
- ★ 가격 : 15,800원
- ★ ISBN : 978-89-546-7282-5 03860
- ★ 담당 : 손예린 (031_955_2654 / lit@munhak.com)